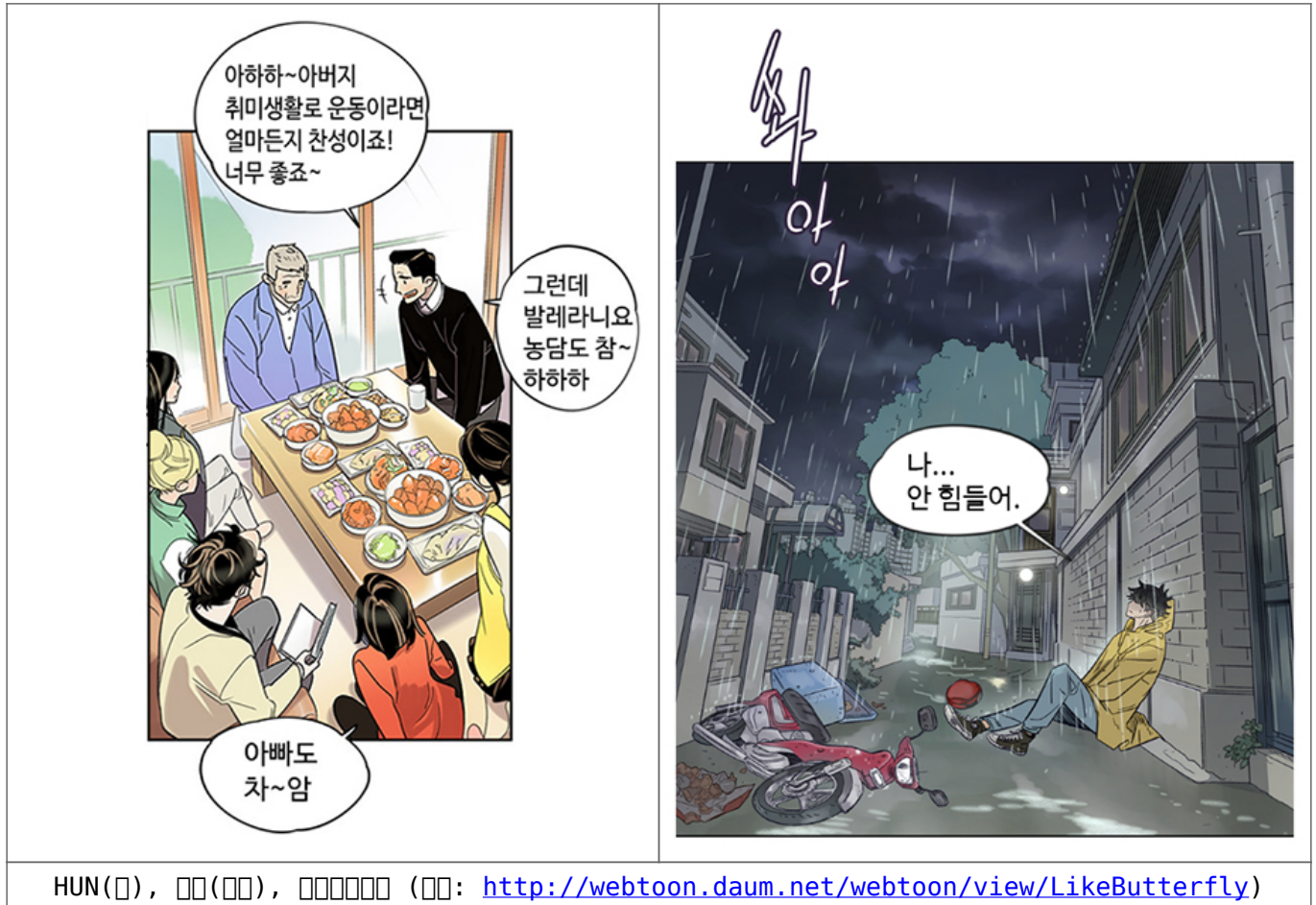




.....



HUN( ), ( ), ( :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LikeButterfly>)

.....

.....

000 000 00000 00 0000 00 0 '000 000 0 0 0000'0 00 000. 000 00  
 000000 00 0000000 '000 000 0 0 00'0 000 00000. 0 00 000 000 000000  
 0 000 00000 0 00000 00 '00000 000 000 0 0 000?'00000. 00000 0 00000  
 0 000 00 000 000000(00000 00)0 00000. '000 000 000000 0 0 000, 000  
 00 000 00000 000'0 000 000 00 00 00 000 00.



HUN(0), 00(00), 0000000 (00: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LikeButterfly>)

0000000000 0 00 000<sup>2</sup>)0 000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0 00 00000 000 000 000. 000000 0 00 000000 00 000 0 00. '00'  
 00000 '000 00'0 00000 00 00000 0000 00 000 00000 0000 000000. 00

이 모든 것, 모든 것, 심지어 모든 것까지 이 모든 것 모두가 모든 것  
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이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의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의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이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든 것!”의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

1) OTT(Over the top):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든 것,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2)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 Daniel Choi)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모든 것들 모두가. DANIEL7@ifac.or.kr











**Shon Seihee (Shon)**

Shon Seihee is a Japanese artist and designer. She is known for her work in the field of digital art and design. She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projec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2021' series and the '2019' series. She has also worked with the 'Atelier Nord ANX gallery' in 2017. Her work often explores themes of technology and human interaction.

---

# Shon Seihee 2021 Digital Art Series #2021

Shon Seihee 2021 Digital Art Series #2021 <Digital Art>

Shon Seihee

Shon Seihee <Digital Art> (Shon, 2021) '2021 Digital Art Series #2021' 50 pieces. 2018 Shon Seihee <Digital Art> series. Shon Seihee is a Japanese artist and designer. She is known for her work in the field of digital art and design. She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project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2021' series and the '2019' series. She has also worked with the 'Atelier Nord ANX gallery' in 2017. Her work often explores themes of technology and human interaction.



2021 연수문화재단 후원공연작품 #PLAYINGYEONSU <우산도둑>, 어린이 연극 우산도둑, 2021.5.28.  
(시간: 오후 11시)

우산도둑은 어린이 연극의 대표작으로, 우산도둑이 우산을 훔쳐가는 과정을 통해 우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산도둑은 우산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우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산도둑은 우산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우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산도둑>은 어린이 연극의 대표작으로, 우산도둑이 우산을 훔쳐가는 과정을 통해 우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산도둑은 우산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우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산도둑은 우산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우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 □□ □□□ □□: □□□□ □□□ □□ □□

□□ □□ □□□□□ □□ □□ □□

□□□(□□ MIR□□□□ □□)

□□ ‘□□□□ □□’□ □□□ □□□□ □□□□ □□□ □□□(□□□□□□, 2021.4.20.~4.24.) □□ 3□ □□ □□ □□ □□ □□□□ □□□. □□□ □□ □□□ 82□ □□ □□ □□ □□□□ □ 40 □□ □□□ □□□.

□□ □□□ □□□□□□ □□ □□□□ 80□□ □□□□ ‘□□□□ □□’□□□ □□□ □□□□□, □□□□□ □ □□ □□□ □□□ □□□□□□ □□□ □□□ □□□□□ □□□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4.20.~4.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글은 <Jazzy, 1990년대>(출판: 2000년, 2000년)

이 글은 <Jazzy, 1990년대>이다. 1990년대는 이 글이 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1990년대는 Jazz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에 출판된 것이다. 이 글은 1990년대-1990년대, 이 글이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1990년대는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1990년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1990년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 글은 이 글이 1990년대 초반에 출판된 이래로 이 글이 'Jazzy'의 1990년대이다.











이영, <황금의 시간>, 아크릴화, 122x145cm, 2021(장르: 추상화)

이영은 2010년대 초반부터 추상화 분야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색채와 형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의 작품은 종종 따뜻한 색조와 유동적인 선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영감을 준다. 이영은 10년 이상 미술계에서 활동하며, <황금의 시간>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오랜 예술적 탐구와 철학의 집약체로, 색채와 형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의 작품은 종종 따뜻한 색조와 유동적인 선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영감을 준다.

이영은 미술계에서 활동하며, <황금의 시간>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오랜 예술적 탐구와 철학의 집약체로, 색채와 형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의 작품은 종종 따뜻한 색조와 유동적인 선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영감을 준다. 이영은 미술계에서 활동하며, <황금의 시간>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오랜 예술적 탐구와 철학의 집약체로, 색채와 형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의 작품은 종종 따뜻한 색조와 유동적인 선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영감을 준다.









Community Art (Community Art)의 전시 모습 (출처: 작가)

'Community Art'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1993년 설립된 'Culture in Action'은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Community Art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1993년 설립된 'Culture in Action'은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름(성명, Sunwoo Eunsil)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이름 성명 성명 성명 ver 5. 성명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이제부터는 2019년 성명 성명 2020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12월 20일 2020년 5월 6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3.0년 3년 5년 성명  
2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00, 0000000 00 00, *Installation view at Incheon Art Platform*

000 00 00 0000 00000 000, 0000 000 0000 0000 000 0000. 00 00 0  
00 00 0000 000 000 00 000 000 0000 000, 000 00 0000 00 0000 00  
000 000 0000. 000 4000 000 00 000 0000 00000, 000 '00'000 000  
000 0000 0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 00 00 0 00000 000  
00 000 0000 00000 00 000 00000 0 0 0000.

000, 00, 0000, 000 00 0000 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0 00, 000 00 0 00 000 0000 0000 000 0 00 000 00 0 00. 000 000  
000 000 0000 00 000 00 000 0000 0000 000 00000 00, 00000 000 0  
000 0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0 0 000 00 000 00 000. 00,  
00, 00, 00 0 000 000 00 000 00000 00 000 000 0000 000 000 00 0  
0 0000 00 0000 00 000 000.







曹青, <Ascon>, 462x84x94cm, Ascon, 2004

曹青, <Coal tar>, 650x150cm, Coal tar, oil bar on paper, 2017

曹青, <Coal tar>, 53x38.3cm(3件), Coal tar on paper, 2004

曹青的这三件作品，分别展示了他在不同媒介和主题上的探索。《Ascon》（2004）是一件大型装置作品，由多根细长的黑色枝条组成，呈现出一种自然生长的形态。《Coal tar》（2017）则是一件大型纸本作品，通过厚重的黑色油彩和煤焦油，创造出一种强烈的视觉冲击力。而另一件《Coal tar》（2004）则是三件小型纸本作品，同样运用了煤焦油这一特殊材料，展现出艺术家对材料质感和表现力的深入挖掘。

曹青的这三件作品，分别展示了他在不同媒介和主题上的探索。《Ascon》（2004）是一件大型装置作品，由多根细长的黑色枝条组成，呈现出一种自然生长的形态。《Coal tar》（2017）则是一件大型纸本作品，通过厚重的黑色油彩和煤焦油，创造出一种强烈的视觉冲击力。而另一件《Coal tar》（2004）则是三件小型纸本作品，同样运用了煤焦油这一特殊材料，展现出艺术家对材料质感和表现力的深入挖掘。

○○ ○○ ○○○ ○○ ○○○ ○○ ○○○

\*○○(b.19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 ○○○○ ○○○○○○.  
2006○ ○○○○○○○○ ‘○○○ ○○○’, 2004○ ○○○ ○○○ ‘○○○ ○○○’, 2009○ ‘○○○○○  
○○○○○’, 2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 ○ ; ○○○○ ○○○○ ○○

○○○ ○○○ ○○○ ○○ ver 6. ○○○  
○○○ ○○ ○ ; ○○○○ ○○○○ ○○

○○○○○○○○○○○ 2019○○ ○○○○○ 2020○○ ○○○ ○○ ○○○○  
○ ○○○○ ○○○ ○○○ ○○○○ 12○ 20○○○ 2020○ 5○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 5□□□ □□  
2□□ □□ □□□□ □□□ □□ □□□□ □□□□.



---



000, <000 00-000 0000>, 0000  
 00, 00, 200x70cm, 2010-2013  
 000, <000 00-000 0000>, 0000

陶, 陶, 陶, 200x70cm, 2013

陶 陶 陶 ; 陶陶 陶陶 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 陶陶陶 陶 陶陶 陶. 陶 陶陶陶 陶陶陶 陶 陶陶 陶陶陶陶 陶陶  
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陶陶 陶陶”陶陶 陶陶陶陶 陶陶陶陶 陶陶陶陶 陶陶陶陶 陶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陶陶陶 陶陶 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陶陶陶.











□□□, <□□ □□>, □□□□ □, □□□, □ □, 120x62cm, 2002

□□□, <□□ □□>, □□□□ □, □□□, □ □, 120x62cm, 2002





---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ver 3.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2019〇〇 〇〇〇〇〇 2020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12〇 20〇〇〇 2020〇 5〇 6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 3.0〇〇〇 3〇〇〇 5〇〇〇 〇〇  
2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0  
0  
,  
<  
0  
-  
0  
A  
c  
r  
y  
l  
i  
c  
o



n paper, 97x130cm, 2018

00 00 00 000 00

000 000. 0000 0000 000 0 000 000 00000. 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 000 000 0000 0000 00 000 0000. 00 00, 000. 50 0 0 0 00  
0 000 000 000 0 000 200 3240 0000 000 000 00 00 00000 00 00 00  
000000 0000 00 000000.

000 000 00 000 00000 00 0000. 19840 000 <0000 0000> 000 0 000 000  
0 00000. 0000 000 000 000000 000 00 000 00 00000 00, 000 00, 00  
0 00 00000 000 00 00 000 000 000000 000 0 00000 000 00000 00 19800  
0 000000000 000 000 000 0000 0000.

00 00000 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00. 000  
000 00 000 000 000000 00 000 0000000 00 199000000 00000000 000 00  
0 0000000 00 00 00000 000 000 000000000 0000.

00000 00 20030 0000000 00000 000000000000 0000000, 000 00000 000 0000  
00 00 0000(2005), 20060 00 000 000000 <0 0000 0000 00> 00000 00 0  
0 000 00 000000 00 00 000 000 000 000000. 0, 00 00 000000 000  
19820 00 '0000:00000000000' 0 19850 00 '00'0 000 00 00000 000 0000  
0000 00 000 000 000 000000 0000000. 00 20050 000 000000000 000 0000  
00 0000000000 00 00000000 000 000 0000000 00000 00000 0000 00 000 00 00

000.

0  
0  
,0  
<  
0  
0  
0  
0  
1  
>  
,  
A  
c  
r  
y  
l  
i



*c on a canvas, 194x130cm, 2018*

000, <00>, *Oil on rice bag, 95x58cm, 1985*

000, <0000 00>, *Oil on rice bag paper, 110x70cm, 1990*

000, <00000 00-0000000>, *Acrylic on paper, 97x130cm, 2018*

00 000 0000 000 0000 000 00000. 000 00000 0000 0000 000 0000 0  
00 0 00 000 00 00000 000 00000 000 00 000000 00 00000 000000.

“0000 0000 0000 00 0 0 00 00 00000? 00 00 00000 0000 00 00000 0000 00,  
00 00 0 0 000000. 0 00000 00000 00 0000 00 00000 0000000 00000. 00 0000  
0000 00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0 000000 00000 00 00 0000 00 0000 0 0000  
000 00 000000 00(Icon)0 000000 0000 00. 0 00 0000 00 00, 0000 000000 0000  
0000 000000 00 00 0000 0000 0000000 00 0000 0000 0000 00 00.





o  
n  
a  
c  
a  
n



vas, 130x244cm, 2017

이 작품은 2017년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확정된 직후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빨간색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0 / 000 (000)

이 작품은 [www.artnet.com](#)에 있습니다.

\*이 작품(b.1954-, 1980년대)은 1980년대 한국 미술의 중요한 흐름인 민중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빨간색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한국 미술의 중요한 흐름인 민중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빨간색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004년 이 작품은 '2004년 한국 미술의 중요한 흐름인 민중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빨간색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 □□, 2010□ □□□□□ □□□□□ □□□□□ □□□□ □□□ □□ □□ □□ □□(□□□□, 2004) □ □□.

\*□□□□ □□□□ □□□□□ □□□□ □□□ □□□□ □□□□□ □□□□. □□□□□□□□□ ACC-R □□□ □□□□□□ □□□□, 20□□ □□□ □□□□□□□ □□□ □□□ □□□□ □□□ □□□ □□□ □□.